

별이 빛나는 밤에 '미술산책'

'별빛 내리는 밤, 별밤 미술관을 만나다.'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아름다운 분수와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 등이 어우러진 공원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산책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코로나 19로 실내활동이 어려운 요즘, 탁 트인 공간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편안한 시간을 누릴 수 있어 사람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산책하며 멋진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문을 연 '별밤 미술관'은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야외갤러리다. 4m×3m 규모의 아담한 컨테이너 갤러리는 낮에도 좋지만 어둠이 내리고 불이 켜지는 한밤에 멋진 모습을 연출한다. 산책하던 시민들은 불빛에 이끌려 자연스레 작품 감상을 하게 되고, 문턱이 높은 미술관 대신 '일상의 공간'에서 그림을 접하며 새로운 경험을 한다. 지친 삶에 찾아든 위로와 힐링이다.

별밤 미술관에서는 지금까지 서양화, 한국화,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만났다. 시원한 폭포 그림을 선보인 송필용 작가의 '꿈은 소리는 소리이다' 전을 시작으로 지난 한해 동안 이호국의 '선을 그리며', 이이남 'BEYOND THE LIGHT' 전이 열렸고 올 1월엔 새해 첫 전시로 최대주 작가의 '피안의 숲' 전이 개최됐다. 전시작들은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난해한 작품보

쌍암공원 야외갤러리 '별밤미술관' 서양화·한국화·미디어아트 등 전시 광산구 3월까지 풍영정 등 4곳 확대 추천위 통해 참여작가 25명 선정

다는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따뜻한 작품 위주로 꾸려져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광산구는 일상 속 예술을 선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전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밤 미술관을 확대·운영한다. 3월까지 풍영정 천변길 공원, 운남근린 공원, 신창역사문화 공원, 선운지구 근린 공원 등 4곳에 미술관을 새롭게 오픈한다. 장소는 광산구 내 각 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희망하는 동을 접수받은 후 대상지를 점검, 결정했다. 규모나 형태는 쌍암공원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전시 작가 선정에도 힘을 쏟았다. 조현영 양주시립장속진미술관 관장, 목포대 정나영 교수, 광주시립미술관 임종영 학에서, 문희영 예술공간 집 대표 등 7명으로 별밤미술관 전시작가 추천위원회를 구성, 상반기 동안 전시에 참여할 작가 25명을 선정했다. 전시 일정과 전시 공간 배정은 미술관 실무진이 맡아 진행한다.

참여작가는 한국화, 서양화, 사진, 미디어, 조각,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김상연·윤준영·임남진·임용현·정성휘·강남구·김해성·박상화·설박·손봉채·윤세영·양나희·정승원·정운하·박인선 등 광주 지역 작가 22명이 전시를 열며 고차분(목포), 박소연(서울), 이가은(목포) 작가는 지역교류 차원에서 함께 한다.

2월 한달 동안은 쌍암공원 별밤미술관에서 한희원 작가가 전시를 열고 있다. '겨울여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티벳 카일라스 순례지 풍경을 담은 '티벳의 별', 쓸쓸한 겨울 정미소를 그린 '그해 겨울', 조지아공화국 트빌리시에서 머물며 작업한 '조지아 정교회' 등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반응도 좋다. 한희원 작가는 "공원을 찾았을 때 작고 아름다운 미술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밤에 산책하며 별빛 아래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 예술이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또 "미술 뿐 아니라 문학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되고, 광산구 뿐 아니라 광주시 전역에서 이처럼 생활 속 문화공간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별밤 미술관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365일 운영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 '별밤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희원 작가 전시회.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낭만주의 러시아 음악으로 위로”

박유신 첼로 리사이틀, 6일 금호아트홀

“특유의 애수 깊은 선율, 때로는 열정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러시아 음악은 한국 사람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의 분위기가 더해져 한층 더 깊어진 러시아 낭만주의의 매력을 선사할 공연이 펼쳐진다.

첼리스트 박유신(사진) 리사이틀이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9년 무대에 올렸던 'RUSSIAN CELLO' 리사이틀의 두 번째 시리즈로, 1부에서는 실연으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숨은 명곡들을, 2부에서는 '첼로 소나타' 중 가장 사랑받는 곡을 집중 조명한다.

1부에서는 미야스코프스키의 '첼로 소나타 1번'과 보로딘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2부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한다.

이날 무대에는 하마마쓰, 톱티보, 쾨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석권한 실력파 러시아 피아니스트 일리아 리쉬코프스키가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기대를 모은다.

공연을 앞둔 박 씨는 “한 공간에서 같이 느낄 수 있는 열정적인 ‘러시아 첼로’의 음악으로 관객분들께 위로와 힘을, 또한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음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리사이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씨는 경희대 음대 졸업 후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 드레스덴 최고연주자 박사과정을 밟았으며, 2017년 드레스덴 국립음대 실내악 콩쿠르 1위, 2018년 아나체크 국제 콩쿠르 2위, 안톤 루빈슈타인 국제 콩쿠르 2위를 차지한 실력파다.



현재 포항 국제 음악제와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솔리스트 활동과 실내악 활동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석 3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창극단 단원 1명 코로나 추가 확진

창극단 제외 7개 예술단은 자가격리 해제...24일 시향공연 예정대로

광주시립창극단에서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 회관)은 4일 창극단 단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앞서 확진된 단원과 밀접 접촉한 단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단원들은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2주간의 자가격리 후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시립예술단 단원들은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국악상설공연에는 광주시립관현악단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악단체가 오를 예정이며, 24일 열릴 시립교향악단 'GSO 오텀음 콘서트'는 예정대로 열린다.

회관 관계자는 “확진된 단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나머지 창극단 단원들은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를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앙상블 드 비올롱 '나눔 연주회'

6일 드림아트홀 공연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바이올리니스트들만으로 구성된 앙상블이 탄생했다. 앙상블 드 비올롱은 바이올리니스트 오현미를 중심으로 21명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구성된 연주단체다. 오 단장은 현악기 중 가장 높은 음을 내며, 음역대가 넓고, 빠른 연주부터 서정적 멜로디까지 다양한 연주가 가능한 데서 가능성을 발견해 앙상블을 구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창단공연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 앙상블 드 비올롱이 오는 6일 오후 6시 드림아트홀(광주시 남구 사동 76)에서 두번째 공연인 '나눔연주회'를 개최한다.

사실 'Dear Mozart'라는 주제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1·2·3·4·5번'과 '2대의 바

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콘체르토네'를 들려줄 예정이었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주제를 '나눔'으로 바꾸고 공연을 준비했다.

'나눔'에는 여러가지 뜻이 담겼다. 코로나 19로 인한 멈춤과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누자는 것과 연주자들이 설 무대가 줄어드는 등의 현실에 대한 무게를 나누자는 의미 등이 녹아있다.

공연은 비오티 '바이올린 협주곡 22·23번'으로 시작하며,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1·2번'과 '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콘체르토네', 바흐 '바이올린 솔로 소나타 1번', 비탈리 '샤콘느 G단조', 쇼스타코비치 '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등을 들려준다.

무대에는 서동원·최시형·박푸름·송은서·박



최정운

강인천

정은·최정운·민선을·팍미소·강인천·소수현 등이 오르며, 피아니스트 박찬숙·김미연·김건주가 협연한다.

오현미 단장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석 초대. 문의 010-2940-567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단체 18일까지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올해 '월요콘서트'에 참여할 공연 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차별화된 클래식 공연 무대인 월요콘서트는 매주 월요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클래식 낭만파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로 구성할 예정이다.

콘서트는 오는 3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5월 31일-9월 5일 및 휴가철·하절기 제외) 매주 월요일 총 20회가 예정돼 있다. 문화재단은 20회 공연 가운데 재단 자체 기획공연 5회를 제외한 15

개 공연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공연팀에게는 ▲출연료 165만원 ▲공연장 및 부대시설 지원 ▲공연안내 보조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70분 이내 소공연장에 적합한 공연 역량을 갖춘 광주지역 예술단체(팀원 4명 이상)로, 장르 구분 없이 클래식 '낭만파 작품'이 프로그램에 20% 포함되면 가능하다.

접수마감은 오는 18일이며 최종 선정은 오는 24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문의 062-670-7942, 793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P&S앙상블의 공연 장면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사관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